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용중

관악구청 주민생활국장

kyj@gwanak.go.kr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지역 특성)

-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중 서울 남쪽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구로서 관악산의 북서면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 안양 등 수도권 남부도시로부터 서울유입의 관문적 위치와 영등포 부도심 및 영동부도심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 동쪽으로는 동작대로를 경계로 서초구와, 서쪽으로는 관악산의 능선과 시흥대로를 경계로 금천구, 구로구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관악산 능선을 따라 과천시 및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국사봉의 산 능선과 도림천을 따라 동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총 면적은 29.57km²로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4.9%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25개 구중 일곱 번째로 넓은 구로 3개의 법정동과 21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08년 10월 현재 세대수는 241,860가구, 인구는 535,9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도는 주거지역이 49.8%, 녹지지역이 46.4%,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3.8%로 도시계획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구 중심부를 남부순환로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우리나라 지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55개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평생 학습센터,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교육도시이다.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완공, 신림선 경전철과 난곡 신교통수단(GRT) 등이 완료되어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유동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신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개발, 주택 재개발·개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대로변의 중심구역이 상업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추진목적

- 현 시점에서 보다 다양화되어 가는 구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복잡화되어 가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관악구의 위상을 과거 달동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지역, 서남부지역의 교통 요충지, 교육도시,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관악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
-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갖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화 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관악구 지역이 보유한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관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관악구는 민선4기 비전과 목표를 품격높은 주거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희망의 교육복지도시를 만들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두고, 중점시책으로 튼튼한 도시인프라, 풍부한 문화복지 기반,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선진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바로 튼튼한 인프라(Infra) 구축이 그 것이다.

관악구의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경제 여건 및 문제 제기

- 관악구는 서울시의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기능 위주의 소비도시로 수려한 관악산 자연공원과 국제적인 서울대학교 입지의 도시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악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관악산(자연환경자원)과 서울대학교(인문환경자원)의 양대 자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반면 관악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토자기반시설 등 물리적 기반이 부족하고 현재 서울시에 서 추진 중인 주요 거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강남구, 구로구 등 주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 이와 같은 관악구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관악구의 최대 과제는 자체적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모색·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주 생활환경 개선 등 물리적 기반을 정비하여 구정의 역량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는 지역의 경제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물적 기반이 정비되더라도 고용 및 소비 유출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관악구의 우선적 과제인 내생적(內生的) 발전동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악구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 기반 및 물적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관악구 고유의 가장 중요한 양대 자원 중 관악산(자연환경자원)은 관악구 뿐 아니라 과천시, 안양시 등 다른 자치단체도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서울대학교(인문환경자원)는 관악구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1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원의 질적 수준에 있어 관악산과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산학협동사회봉사 등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연계, 확산시

켜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도시중심기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 특히 서울대학교의 연구기능 등을 지역사회와 접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 중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의 중심기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

- 관악구내 사업체 업종은 도소매업(21.8%/5,791개), 숙박 및 음식점업(20.9%/5,562개), 운수업(15.6%/4,159개) 순으로 상업·유통·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별 종사자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15,565명/16.3%), 도소매업(15,153명/15.9%), 교육서비스업(13,924명/14.6%) 순으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작은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관악구가 2.44%로 서울시의 5.2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관악구와 서울시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전산업 종사자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종사자는 4.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시는 12.32%를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관악구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가 0.39로 서울시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문화·주거 환경의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하다.

〈표 1〉 서울시와 관악구의 지식기반산업 비교

(단위 : 개, 명, %)

구 분		LQ	관악구	서울시
사업체수	지식기반제조업		147(0.56%)	8,984(1.22%)
	지식기반서비스업		498(1.88%)	29,373(4.00%)
	지식기반산업 소계		645(2.44%)	38,357(5.22%)
	전산업		26,480	733,759
종사자수	지식기반제조업	0.56	1,394(1.46%)	100,790(2.59%)
	지식기반서비스업	0.34	3,208(3.35%)	379,109(9.73%)
	지식기반산업 소계	0.39	4,602(4.81%)	479,899(12.32%)
	전산업		95,624	3,894,666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2006년 기준)
관악구, 「관악구장기비전전략계획」, 2008

- 관악구 지역상권을 분석해보면, 상업지역이 6개로 인구대비 상업지역 면적은 25개 구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상권은 신림역 주변과 서울대입구역 주변으로 인구대비 연면적 비중은 하위권 수준으로 쇼핑활동은 다양화되어 있으나 쇼핑시설이나 보행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서울대입구역과 신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분포하지만, 개별 상점들이 점적으로 분산되어 다양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쇼핑을 즐기기가 어렵고, 가로변 상업지의 보행환경은 열악해서 상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신림역세권, 서울대입구역세권,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상업복합시설의 입지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

〈표 2〉 관악구 상업지역

위 치	계	봉 천 사거리	신 림 사거리	난 곡 사거리	남현동 1060번지 일대	조원동 1655번지 일대	보라매동 729번지 일대
면적(ha)	44	13.3	15.2	16.7	3.8	6.1	3.9

자료 : 관악구, 「관악구장기비전전략계획」, 2008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 교육 분야

- 관악 Edu-Vally 2020 장기계획에 의거 서울대와 관악구가 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 멘토링사업, 어린이 영어캠프, 청소년 공학캠프, 관악시민대학, 지역영재아 수월성교육, 여성 취업기반 조성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서울시 영어마을 관악캠프를 낙성대동에 사업비 315억원 들여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악구 북부지역에 인문계 구암고등학교를 유치, 확정하여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조감도

○ 도시계획 분야

- 경쟁력 있는 대학연구도시 만들고자 5대부문, 20개전략, 70개단위사업의 관악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3개 융합축 형성 및 Univercity Common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부순환로 주변 봉천·신림지구중심, 난곡사거리,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업무 및 유통 입지기반 마련, 물류유통의 중심지, 자족가능 도시로 발전한다.

- 신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교육복합타운, 시니어 웰빙타운, 친환경 아동복 지타운으로 주거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림 2〉 남부순환로 주변 개발여건 조성

○ 도로 · 교통 분야

- 지난해 7월에 착공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서울대학교 앞 관악I.C 지하화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공사 완공시 강남 접근성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으며,
- 2,8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난향초등학교 - 보라매공원” 간 난곡 신교통수단 (GRT) 건설사업이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 완공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된다.
- 또한 “서울대학교 - 여의도” 경전철 신림선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7,4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 개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1, 2, 7, 9 호선과 직접 남북 축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난곡 신교통수단(GRT)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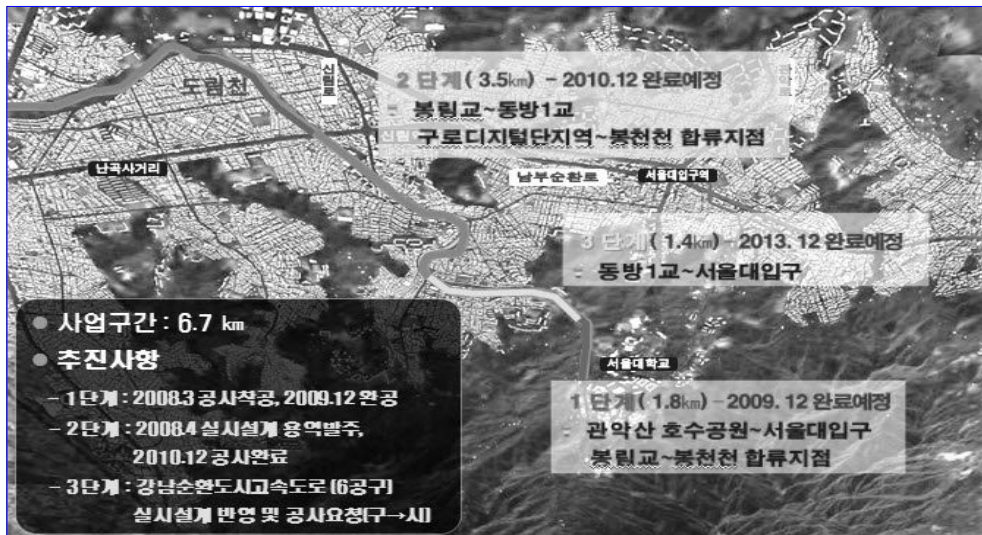


〈그림 4〉 경전철 신림선(서울대-여의도) 노선도

○ 환경 녹지 분야

- 관악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생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관악산을 친환경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남북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개발하고, 그린웨이(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단절된 녹지를 복원시킬 예정이다.

- 또한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지역 구간 도림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1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낙성대 성역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남향동 신도비지구를 8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공원을 조성, 남현동 채석장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녹지 및 문화관광분야의 변모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5〉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공간구조 개편

- 관악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관악구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유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① 지역중심 - 서울대입구역 일대

서울대입구역 일대를 관악구 지역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기능은 업무, 상업, 문화, 교육중심으로 개발한다.

② 지구중심 - 신림사거리 일대

신림역 주변에 집중된 지구중심 기능의 유지와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문화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

③ 커뮤니티중심 - 난곡사거리, 도림천, 뉴타운, 낙성대역

커뮤니티중심은 난곡사거리, 뉴타운, 도림천, 낙성대역이며, 남부순환도로가 남북축 생활권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생활권간 연계성을 높인다.

④ 남부순환도로축 개발

남부순환로변의 전철역사(7개역) 주위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대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한다.

○ 첨단 정보통신(IT)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

-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각종 정보제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인현동 지역을 대상으로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연구공원 일대를 소프트웨어 집적지역으로 SNU Valley(가칭)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SNU Valley 조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집적을 유도하고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풀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및 연구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연구공원 일대를 산업기술단지 또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유치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세제지원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강남구, 서초구에서 활동중인 업체 이전과 기업유치를 구청 차원에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집적지로 육성해야 한다.

○ 기업활동 촉진 네트워크 조성

- 기업활동 촉진 네트워크 조성으로 기업 업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관악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기업 업무 환경이 열악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업유인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는 Intelligent Building이 없다.
- 따라서 Intelligent Building 유치, 각 중소기업의 CEO모임 개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조성 및 지원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골목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신원시장이 2005년, 그리고 관악신사시장이 2006년에 각각 지방비 및 민자부담 20억원의 사업비로 아케이드, 전기, 소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시장 이용객이 30% 이상 늘어나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또한, 2009년에는 인현동시장이 국비, 지방비, 민자부담금 25억원의 사업비로 아케이드 설치, 전선 지중화, 건물 및 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그림 6> 관악신사시장 환경개선사업 전과 후

○ 건물형 전통시장 재개발, 재건축 추진

- 건물의 노후화로 슬럼화하고 있는 건물형시장을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룡시장, 봉일시장, 난곡종합시장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 그리고 청림동 소재 봉천신시장은 금년 2월 관리처분 인가를, 조원동 소재 신림중앙시장은 금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대학동 소재 동방종합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라매동 소재 당곡시장은 재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이고, 은천동 소재 봉천현대시장은 사업 추진계획 승인 준비중에 있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대규모 쇼핑몰 유치 등 쇼핑의 명소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중소기업 경영자금 적기 지원

- 현재 58억 5천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매년 20억원 내외를 대출금리 4%로 벤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관악구상공회를 통한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화, 협업화사업 전개

- 관악구상공회 회원사 1,500여 업체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구예산을 지원하여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 경영상담, 특화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기업정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을 전개한다.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및 마켓론 운영 활성화

- 관내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이 완료된 시장에 대하여 상품권을 상인회가 공동으로 발행하여 재래시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휴먼예금관리재단과 공동으로 마켓론 사업을 시행하여 영세 시장상인의 자금유통을 지원한다.

맺는말

- 관악구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서 관악산이라는 자원과 함께 인문환경 자원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서울 서남권 ‘4대 경제축’ 계획에 따라 서울대와 송실대, 중앙대를 연결하는 R&D벨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를 활용한 R&D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자원과 기회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악구는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주변지역으로서의 고용 및 소비의 유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 및 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기반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높은 인구밀도로 도시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따라서 지역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자체적·내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 관악구를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신성장 동력의 모체로 삼아 내생적 특화발전 전략을 전개하는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성공적으로 전개 된다면 관악구의 지역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관악구장기비전전략계획, 2008. 7
- 관악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 2008. 2
- 관악구, 「관악통계연보」 2007